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김 정 우
(경남대)

1. 머리말

본고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번역학 연구의 현황을 개관하면서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지금까지 외국어문학 등의 하위분야로 번역학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번역학이 독립된 연구 분야로 정립되어 '제도권' 학문의 장에서 논의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¹⁾

이러한 시간적 맥락에서 현재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번역학 연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전망을 예측해보려는 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기술될 한국 번역학사를

* 이 논문은 2005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 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1) 1999년 12월에 있었던 '한국번역학회' 창립과 2003년 10월에 있었던 '한국통번역교육학회' 창립은 이런 의미에서 국내 번역학 연구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한 작은 디딤돌로서의 소임을 맡으려는 것이다. 연구 대상 자료는 ‘한국번역학회’의 학회지 『번역학연구』(2000년 1권 1호-2005년 6권 1호)와 ‘한국통번역교육학회’의 학회지 『통번역교육연구』(2003년 1권 1호-2005년 3권 1호)에 발표된 논문에 국한하기로 한다.²⁾ 물론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점 이전에도 번역학과 관련된 논저가 없지 않지만³⁾, 이들 학회지가 분명 번역학의 연구 성과가 집약되어 표출되는 논의의 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구의 현황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연구 대상 자료를 분류하고, 연구사를 기술하는 이론적 틀을 소개한다. 본고의 중심이 되는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이론적 틀에 따라 분류된 개별 업적에 대한 정리와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⁴⁾ 제5장에서는 개별 논의에 대한 정리와 평가에 대한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번역학의 연구 방향을 전망해 본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앞선 논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안한다.

2. 자료 분석과 기술의 이론적 틀

우리는 위에서 언급된 기초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홈즈(Holmes)의 번역학 체계에 따라 이들을 분류했다.⁵⁾ 이 체계에서는 먼저 번역학을 우선 순수 번역학(pure translation studies)과 응용 번역학

- 2) 이 가운데서 순수하게 통역과 관련된 논문을 제외하면, 각각 89편과 24편이 되어 모두 113편의 논문이 검토 대상이 된 셈이다.
- 3) 향후의 완성된 한국 번역학사에서는 이들 업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업적이 번역학이라는 학문적 범주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자각 하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도 역시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울러 본고에서 다루게 될 이 시기(2000-2005)는 번역학 연구의 초창기로 한국 번역학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의미가 중요하게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
- 4) 원칙적으로 모든 연구 업적을 논의의 대상으로 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업적의 핵심적인 연구 결과를 놓친 서술도 있고, 필자와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한다.
- 5) 뎀(Pym 1998: 2)에서 재인용했다.

(applied translation studies)으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하위분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 순수 번역학
 - 1.1. 이론 번역학
 - 1.1.1. 일반 이론
 - 1.1.2. 부분 이론
 - 1.2. 기술 번역학
 - 1.2.1. 결과 중심
 - 1.2.2. 과정 중심
 - 1.2.3. 기능 중심
2. 응용 번역학
 - 2.1. 번역자 훈련
 - 2.2. 번역 보조 수단
 - 2.3. 번역 비평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류의 큰 틀을 따르되, 세부 항목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그래서 일단 기왕의 업적을 순수 번역학과 응용 번역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세부 분류 항목은 해당 부분의 제목으로 대치하기로 한다.)

3. 번역학 연구사(2000-2005) I -순수 번역학

3. 1. 이론 번역학

3.1.1. 총론

이론 번역학 분야에서 우선 눈에 띄이는 것은 번역학의 성립과 발전 및 연구 동향을 소개한 일련의 논의이다.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한국의 번역학이 아직 연구의 초창기라는 배경에 기인한다고 하겠지만⁶⁾, 향후의 연구 방향 설정에

6) 이러한 성격의 보이는 논문이 학회지 창간호(2000년 1권 1호 및 2003년 1권 1호)에 대거 실려 있다는 사실도 저간의 사정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김지원(2000, 2004), 김효중(2000a, 2000b, 2004), 박여성(2000), 유명우(2000), 원영희(2002), 허명수(2003), 이유식(2000), 정호정(2003b), 김정우(2003b) 등의 업적이 여기에 속한다.

김지원(2000)에서는 비교문학의 태생적 기반을 벗어나서 언어학과 의사소통학의 창조적인 결합으로 태동하는 번역학의 성립 과정을 탐구하는 한편으로, 원작과 번역의 역학 관계를 역사적인 시각으로 고찰하면서 번역학의 존재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번역학의 흐름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힌 김지원(2004)에서는 주종관계에 입각한 원본과 번역본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과정(7)을 번역학의 정착 과정으로 보면서, 번역본을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창작된 또 하나의 원본으로 간주하는 제3세계 번역가 집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울러 ‘관계성 이론’, ‘스코프스 이론’, ‘다체계 이론’ 등 현대 번역학의 연구 경향도 언급되어 있다.

유명우(2000)에서는 ‘한글 전용과 한자 사용의 문제’,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 문제’, ‘외국어 교육과 번역 교육 문제’, ‘번역 비평과 오역의 문제’, ‘한문 고전 국역의 문제’ 등을 우리 번역학계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규정하면서 번역과 번역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종래 국어학 내지 국학의 과제로만 생각되던 문자 정책이나 외래어/로마자 표기 규범, 고전 국역 등의 문제를 번역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한 것은 번역학의 학제적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번역학의 실용적인 효용성을 확인한 문제 제기로서 이 땅에서 번역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김효중(2000a, 2000b, 2004)과 박여성(2000)은 주로 독일 번역학의 연구 전통과 성과에 기대어, 번역의 역사와 번역 이론의 발전 양상 및 번역학의 전반적인 체계를 소개한 논의이다. 김효중(2000a)에서는 루터와 벤츠키⁸⁾를 거쳐 라이프치히 학파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번역 등가 개념에 관한 학문적 논쟁을

7) 여기에 나오는 ‘하인과 주인’, ‘초상화가’, ‘부정(不貞)한 미녀’, ‘정절 계약’, ‘부친 살해’ 등의 비유야말로 이러한 역사적 경향을 웅변하는 시대적 표현이다.

8) 주석을 달아 역문의 독자들에게 언어 외적 사실을 설명해주는 번역이 완벽한 번역이라고 한 그의 견해는 우리에게 조선조의 언해 체제가 지닌 번역학적 가치를 새롭게 음미하는 계기를 제공해주기에 충분하다.

다루고 있으며, 김효중(2000b)에서는 번역 등가의 유형을 구분하고 등가의 개념 구현을 위해 텍스트의 유형 분석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효중(2004)에서는 문화 개념이 번역학에 도입되면서 등장한 해석학적 번역 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박여성(2000)에서는 구성주의 인식론과 텍스트 언어학 등을 기반으로 번역학의 세부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원영희(2002)에서는 번역의 정치적 성격에 주목하여 번역자의 탈식민주의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영어권의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길 때 벌어질 수 있는 수직적 번역의 폐해 가운데 하나로 대명사 ‘그’의 남용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인문학과 달리 이렇다 할 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요한 주제를 담론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허명수(2003)에서는 번역이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국제적 감각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번역가에 의한 새로운 원문 읽기와 번역문 만들기를 촉구하면서 관련 주제들의 혁신적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유식(2000)에서는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된 169종의 문학 작품을 토대로 번역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현지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미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번역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략적인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정호정(2003b)에서는 코퍼스 언어학의 전개 과정을 개괄하면서 이를 번역학 연구, 특히 현장의 번역교육에 접목할 가능성을 탐색한 논의인데, 이 이론을 A-B 번역 교육에 적용할 경우에 번역투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김정우(2003b)는 번역학과 국어학의 접경지대에 속한 연구 과제를 개괄한 것으로, 국어 삼인칭 대명사 ‘그’의 기원과 사용 양상, 외래어 표기법, 번역 교육, 언해 전통의 현대화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어학과 번역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주제들로서 양쪽 분야에서 서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3.1.2. 대조 분석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외국어(주로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 전반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드러낸 이른바 대조 분석 방법론에 입각한 업적이다.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 구조 차이에 대한 논의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조 분석에서 드러난 차이를 번역 과정에서 처리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경우도 있었다. 이영옥(2000, 2001, 2002, 2003, 2004), 조인정(2005), 박성희(2000, 2001, 2002a, 2002b, 2004), 백수진(2001), 손재현(2001), 김순영(2003), 최수나(2004), 윤희주(2004) 등의 업적이 여기에 속한다.

이영옥(2000, 2001, 2002, 2003, 2004)는 이 분야의 연구가 거둔 중요한 성과이다. 이영옥(2000, 2001, 2002, 2003, 2004)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 차이를, S-V-O vs. S-O-V라는 어순의 차이와 명사-지향성(사물-지배) vs. 동사-지향성(행동-지배)이라는 상위 구조의 차이로 파악하고, 양쪽 언어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차이가 모두 여기서 파생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⁹⁾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영옥(2000)에서는 한국어에서만 가능한 수동구문(소재와 연속, 지각 등)과 영어에서만 가능한 수동구문(감정동사 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영옥(2001)에서는 한국어와 다른 어순을 가지며 주어 자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어의 언어적 특성이 무생물 주어 구문의 출현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전제에서, 영어의 무생물 주어 구문은 대체로 한국어에서 부사구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이영옥(2002)에서는 인용문을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대조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어가 종결어미에 의해 발화 상황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해서, 일반적인 상황의 번역에서는 영어 원문의 직접인용문을 한국어 번역에서 간접인용문으로 처리해야 자연스럽다

9) 특히 '자료 중심 연구 방법론'에 입각해서 실제 담화 상황에서 수집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대조와 분석에 활용한 점도 이 연구가 갖는 장점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10) 무생물 주어를 살린 한국어의 대응표현(Freezing weather gripped the country - 영하의 날씨가 전국을 사로잡았다)이 가능한 경우를 일종의 고착화(entrenchment) 현상으로 보았는데, 이런 논리를 밀고 나간다면 다른 구문에서는 왜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이영옥(2001)에서는 '의인화될 수 있는 기상조건'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동작을 일으킬 수 있으면 무생물 주어도 가능하다는 한국어의 특징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 바람이 모래산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이 모래산을 만드는 것'은 자연계에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¹¹⁾ 이영옥(2003)에서는 장소 이동 표현을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대조 분석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단일 동사에 각종 동작 양태에 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담아서 표현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여러 동사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형식을 사용하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양태부사나 의성어, 의태어를 첨가하고 조동사 등을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영옥(2004)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명사 확장 방법 차이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번역 방법을 구체적인 용례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우분지 언어인 영어에서는 명사의 확장(수식)이 여러 단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좌분지 언어인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의 관계절 구문을 번역할 때는 문장을 분해하거나 명사를 동사로 해석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적절한 한국어 구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¹²⁾

조인정(2005)은 기능 중심의 정보구조 이론을 기반으로 한 대조 분석 연구인데, 영어의 수동태 구문을 한국어로 옮길 때 원문에서 담당하던 수동태의 기능(의도)을 파악한 다음에 이를 살려서 한국어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인정(2005)의 논의에 따르면 수동태 구문의 영-한 번역에서 옮기는 대상은 언어의 형식이 아니라 기능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앞서 검토한 이영옥(2000, 2001, 2002, 2003, 2004) 등과 같은 대조 분석 방법론에 담긴 형식적 설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와 영어처럼 언어 구조가 확연히 다른 언어를 하나의 문법 모형 안에서 대조하는 형식적 설명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¹³⁾, 정보구조 이론의 ‘정보’(theme)-‘서술’(rheme) 및 정보량(communicative dynamism) 개념은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영어와 한국어를 대조하는 경

- 11) 결과적으로 한국어의 직접인용문에 담긴 청자와 화자 사이의 상호 사회언어학적 요소를 제거하고 문장 자체만을 남겨야 영어 문장과 대등한 차원에서 등가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2) ‘부사성 의존명사’를 ‘부정 부사’로 지칭하는 등 일반적인 국어학의 용어 사용 양상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 용어의 통일성 문제를 제기한다.
- 13) 한국어는 주제와 주어가 두드러진 언어인 반면, 영어는 주어가 두드러진 언어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언어 구조가 전혀 다르다면 이를 분석하는 문법의 모형도 달라야 할 가능성이 높다.

우에도 유효할 것이다.

곽성희(2000, 2001, 2002a, 2002b, 2004)¹⁴⁾는 텍스트 언어학과 말뭉치 언어학의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분석하고, 양쪽 언어를 넘나드는 번역 전환에서 일어나는 양상을 계량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 차이를 통해서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대명사 사용의 빈도 차이 등)이라도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곽성희(2000)에서는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대조를 통해 결속구조와 용인성, 정보성, 상호텍스트성 등의 측면에서 전환이 일어났음을 지적하고, 제반 전환 양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곽성희(2001)에서는 번역자가 출발언어권과 도착언어권 독자의 정보성 차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구사하는 정보의 확대, 교체, 축소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번역자가 출발언어권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원문을 수용하고 도착언어권 문화에 익숙한 독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곽성희(2002a)에서는 7가지 텍스트성 가운데 결속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영-한 번역에서 일어나는 전환 양상을 관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시 결속구조는 동일어휘로 반복되거나 생략되고, 접속 표현은 첨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휘적 결속구조는 동일어휘 반복으로 전환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곽성희(2002b)에서는 33편의 각종 텍스트를 자료로 삼아 상호텍스트성¹⁵⁾이 번역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곽성희(2004)는 결속 장치(cohesive device)에 대한 언어간 대조 연구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 및 한국어 원문을 분석 자료로 삼고 있다.

백수진(2001)은 조응 현상(anaphora)에 대한 중-한 대조 분석으로 영(零)조응과 대명사 조응, 명사 조응 등이 중-한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관찰하고 있다. 논의의 결과, 중국어 원문에서 후행절의 서술어였던 부분이 한국어 번역문에서 선행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하는 현상과, 양쪽 언어의 지시사 체계(이-這, 那)가 상황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드러났다.

14) 이들 일련의 논의는 번역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술 번역학의 업적으로 분류할 여지도 없지 않다.

15) 주어진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그 참여자가 과거에 접한 다른 텍스트에 의존하는 모든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곽성희(2002b: 165-167) 참고.

손재현(2001)과 최수나(2004)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연구이다. 먼저 손재현(2001)에서는 1,030개의 한국어 단어와 348개의 일본어 단어를 대상으로 차용 접미사 ‘的’의 사용 양상을 비교했는데, 분석 결과 음절수는 한-일 양국어에서 대체로 2음절로 나타나고, 일본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229개 한국어 단어와 한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29개 단어가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한-일 번역이나 일-한 번역에서 동일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각각 22.9%와 7.5%의 오역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형태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한-중-일 삼국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면의 번역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수나(2004)에서는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의 방법론에 의지해서 한-일 번역 사례에서 나타나는 간섭 현상을 분석했는데, 특히 문화 요소의 습득이 다른 분야의 지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통번역 교육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김순영(2003)에서는 영-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정관사(the)의 변용 양상을 고찰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문법적 장치가 없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텍스트의 결속성(화용적 등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련의 의미 보충 현상(독자의 기억 환기, 선행 문장 내용의 명시적 표시, 도착언어의 언어 습관 준수, 독자의 이해)이 일어난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윤희주(2004)에서는 의미론의 성분분석 이론을 원용하여, 등가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제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필자의 논의대로 원천언어 텍스트의 맥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성분분석은 번역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의 평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언어학이 지닌 효용성을 확장한 연구로 생각된다.

3.1.3. 번역 기법

대조 문법 다음으로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번역 기법과 관련된 연구이다. 사실 이러한 분류 영역은 기술 번역학의 과정 중심 연구와도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론적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주로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성백환(2000, 2003), 김순미(2002), 이근희(2003), 진실로(2003), 김세정

(2003), 원영희(2004), 우형숙(2004), 이혜승(2004a, 2004b), 최미경(2004), 김정우(2001, 2002, 2003a), 최성희(2005), 한정은(2005)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성백환(2000, 2003)에서는 번역 속도의 제고를 위한 순차 번역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자는 단어나 어구와 같은 언어 형식상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심층구조에 존재하는 사고 단위(명제)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번역을 하는 것을 순차번역 기법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기법에 입각한 번역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사고 단위를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론을 실제 현장의 번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매뉴얼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번역 이론은 번역 실무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김순미(2002)에서는 은유 표현의 번역 양상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인지 체계에 대한 번역자의 심도 있는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근희(2003)에서는 고유 명사나 특정한 문화와 사건, 관용구 등 문화 상관어의 번역 양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번역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진실로(2003)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색채 어휘 사용 양상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실제 코퍼스를 기반으로 용법을 확인하고 공식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세정(2003)에서는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텍스트의 정보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영 번역의 어휘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 있는데, 3차 정보성을 가진 텍스트가 많은 문학 작품의 번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성의 격하가 일어나기 쉽지만, 정보성의 적절한 조절이 바로 번역자의 역할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원영희(2004)에서는 '선명성' 가설을 기반으로 '정확성'과 '상황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우형숙(2004)에서는 한국 시의 영역 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언어의 발현 양상을 조사했는데, 시를 번역할 때 번역자가 언어(連語)의 의미 체계를 읽어내는 일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혜승(2004a, 2004b)는 노-한 번역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은유 표현이 기능적 등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번역되는가를 관찰하고(2004a),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개재된 은유 표현의 번역 양상을 정리하고 있다(2004b). 최미경(2004)에서는 문학 작품의 한-영 번역 자료 분석을 통해 환유와 제유 표현의 번역 처리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등가성이 아닌 전반적인 효과가 번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우(2001, 2002, 2003a)는 영-한 번역과 관련된 기법에 관한 일련의 연구로서, 우화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 문맥(장르, 시점, 화자, 작가의 의도, 독자, 전문지식, 경어법 등)의 처리 방안(2001)과 강조 표현의 처리(2002) 및 의학서를 대상으로 한 자연과학 텍스트의 번역 방법론(2003a) 등을 각각 탐색하고 있다. 최성희(2005)에서는 존 단(John Donne)의 시를 성공적으로 번역하는 전략을 모색한 연구인데, 축자(literal) 번역과 자유재량(free) 번역의 중간지대에 자리잡은 절충주의(eclectic) 번역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한정은(2005)에서는 한-중 및 중-한 번역에 나타나는 직시어의 변용 양상을 공손성 원리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직시어 사용 양상의 변화가 화자와 청자 관계의 변화를 드러내는 지표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1.4. 기타

위의 어느 한 분야에 소속시키기 어렵게 성격이 복합적이거나 분야를 지정하기 힘들 정도로 개성적인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기로 한다. 양병선(2000), Choi(2000), 김정우(2000)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병선(2000)에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번역의 일종인 음역(phonetic translation)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변천사를 개관하면서 그 미비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어의 영자 표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최병현(2000)에서는 번역 과정이 번역가에 의한 끊임없는 등가 표현의 선택 과정이며, 따라서 원문에 대한 ‘비평’인 동시에 ‘창조’(transcreation)이자 ‘초월’(transcendentalation)임을 천명하고 있다. 김정우(2000)에서는 언어학 술어에 대한 체계적인 번역 방안을 일반적인 번역 과정 모형인 번역 과정과 표현 과정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있다.

3. 2. 기술 번역학

3.2.1. 장르 중심 연구

기술 번역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정한 장르의 번역에 대한 연구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문학 번역과 관련된 연구가 두드러지고, 신문 기

사 번역과 영화, 광고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가) 문학 번역

권택영(2000)과 오성현(2001)은 소설의 번역과 관련된 연구이다. 권택영(2000)에서는 발터 벤야민 이후의 번역 이론을 검토하고, 나보코프의 『롤리타』를 대상으로 하여 번역의 주체와 언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이(transference)의 양상을 ‘여분’과 ‘응시’라는 관점에서 탐색하고 있다. 오성현(2001)에서는 율리시즈 작품의 한국어 번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김효중(2002, 2005)는 시의 번역 문제를 A-B 번역과 B-A 번역 양쪽에서 관찰하고 있다. 김효중(2002)에서는 키스터(D. A. Kister)의 정지용 시 영역에 대해 어휘, 문장, 의미, 사회-문화적 배경 등 다각도의 번역 비평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효중(2005)에서는 1940년대에 릴케의 독일시를 번역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번역 작가 윤태웅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형식과 내용의 일치를 도모하고 우리말의 정취를 살리려고 노력한 이 번역가의 작가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¹⁶⁾

신지선(2005)와 백수진(2005)에서는 아동 문학 작품의 번역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지선(2005)에서는 아동문학 번역에서 가화성(speakability)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대폭 사용하는 번역 규범을 정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어서 현장의 매뉴얼로 삼기에는 난점이 있지만, 아동문학이라는 특정한 분야의 번역에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백수진(2005)에서도 중한 동화 번역 작품을 자료로 하여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 있는데, 몇 가지 다듬기 틀(부연과 첨가, 생략과 삭제, 변환, 이동과 정돈)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신지선(2005)과 같은 유형의 결론(감각어의 사용)을 이끌어내면서, 아동 문학의 번역을 문체의 번역으로 규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16) 번역 작가의 발굴이란 국문학사를 살찌우는 성과인 동시에 한국번역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성과이기도 하다.

(나) 신문방송 기사

김영신(2003a, 2003b, 2004, 2005), 이근희(2004), 김재희(2004b)는 신문과 방송의 뉴스 번역을 다룬 연구이다. 먼저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을 대상으로 한 김영신(2003a)에서는 담화 공동체라는 개념을 빌려 뉴스 표제 장르의 영-한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양상을 검토하고 있다. 언어 수사적인 표현에 의해 생동감을 전달하는 원문을 번역할 때 한국어 번역사는 대체로 요약 번역을 선호하는데, 이는 담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번역사 자신이 가진 한국어 신문 표제에 대한 지식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논의이다. 김영신(2003b)는 뉴스 기사 원문에 있는 이데올로기 요소의 전이 양상을 고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당 이데올로기가 번역문 독자의 믿음 체계와 얼마나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번역자의 중재자 역할(정보 내용의 삭제나 이념적 수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실제 영-한 번역 자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김영신(2004)에서는 신문 기사의 전문(lead)의 영-한 번역 전략을 고찰하면서, 요약 제시형 전문의 경우에 독해의 편의를 위해 부가적인 정보의 추가 현상이 일어나거나 제시되는 정보의 순서가 조정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김영신(2005)에서는 뉴스 기사의 영-한 번역 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 작용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번역문 독자를 고려한 각종 번역 전환 양상에 접근하고 있다. 이근희(2004)에서도 정보 중심 텍스트인 뉴스 기사 번역 자료 분석을 통해 원저자와 독자 사이의 배경의 차이를 줄이려는 번역자의 조정자 역할(정보의 대체, 추가, 생략, 왜곡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재희(2004b)에서는 한국어-아랍어 라디오 뉴스 기사의 번역 자료 분석을 통해 번역문 텍스트의 지나친 확장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략이 일어나며, 그대로 번역에서 살릴 수 있는 약어와 그렇지 않은 약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다) 영화와 광고

장민호(2004, 2005)에서는 영화의 대중성¹⁷⁾에 주목하여 영화 대사의 번역에

17) 연구자는 나이다(Nida 1969)가 성서 번역에서 확립한 번역 원칙, 곧 ‘대중성’의 눈높이 원칙이 영화 번역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나이다(1969)에서 제시된 ‘역동적 등

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장민호(2004)에서는 언어의 경계 현상을 유형화해 논의하면서, 영화의 성격을 번역과 창작과 각색 및 번역과 통역의 경계 지대로 설정한 다음, 도착언어 문화권의 수용성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일반화-구체화, 외국화-중화-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민호(2005)에서는 유머 효과의 감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막의 번역 양상을 관찰하고 있는데, 중립화와 생략 전략이 유머 효과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재희(2004a)는 한국어-아랍어 광고 번역 문안을 자료로 번역 양상과 광고 효과 사이의 상관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주로 문화적 이해 부족에 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2.2. 결과 중심 연구

다음으로 눈에 띄이는 것은 번역의 결과를 대상으로 언어적 변환 양상을 분석하거나 그 기능을 논의한 연구이다.

원영희(2000), 신씨아(Cynthia)(2001), 최정아(2003), 황세정(2004), 김순영(2005)는 전자에 속하고, 유명우(2002, 2004), 전현주(2004), 김동소(2005), 김정우(2005)는 후자에 속한다.

원영희(2000)는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에서부터 『성경전서/개역 개정판』(1998)에 이르기까지의 9권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글 성경의 변천 과정을 살피고 있다. 그 결과 개정 작업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부단하게 한글 성경 텍스트에서 등가 변형이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텍스트의 변개 양상을 추적하면서 되도록 그 원인까지 규명하려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신씨아(2001)에서는 해외에 소개된 한국 소설의 영역본을 검토하면서, 해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번역을 산출하기 위한 ‘언어 연금술사’의 다차원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최정아(2003)는 말뭉치 언어학에 근거한 양적 통계 분석의 방법론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어 수효의 증감 현상을 분석한 연구로서, 문법 구조의 차이와 번역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 번역 과정에서 단어 수효의 증감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가'의 개념을 기본적인 이론틀로 삼고 있다.

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¹⁸⁾, 분석 자료의 계량화에 따른 실증적 연구 방법 자체는 음미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황세정(2004)에서도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영-한 번역에 나타난 텍스트의 언어 사용역(register)을 분석하면서, 담화의 영역과 방법과 경향에 따라 번역의 방향 설정과 문체와 정보량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김순영(2005)에서는 20명의 통번역대학원 학생 및 한 명의 전문 번역사가 작업한 동일 원문(특히 수식 어구)에 대한 번역 결과를 비교하여, 번역된 텍스트의 일반적 특징인 상세 설명을 확인하고 있다.

유명우(2002, 2004)는 한국 번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일련의 연구로, 뫼(1998)에서 제기한 번역사 기술의 의의와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한국 번역사의 시대구분¹⁹⁾ 가설을 제안하고(2002),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를 이두의 대안(=번역 수단)이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조선조에서 번역된 언해서의 총목록을 열거하고 그 시대사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2004). 전현주(2004)에서는 다중 체계 이론을 번역사에 적용한 연구로, 한국 번역 문학사에 영향을 미친 네 가지 시스템(백색문학, 노벨상, 전집류와 문고판, 독자의 선호도)을 자료의 양적 분석으로 밝혀내고 있다.²⁰⁾ 김동소(2005)는 만주어 성서 주기도문에서 일반적인 번역과 차이가 나는 부분(yaya hacin i jemengge ci colgoro.....)의 기원을 고구한 연구인데, 이 부분이 라틴어 단어 ‘supersubstantialis’의 의미를 ‘여러

-
- 18) 가장 큰 문제는 영어와 한국어의 단어를 정의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소 자립 단위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자법 단어와 종합적 견해에 따른 어절(곡용과 활용을 마친 상태)을 각각의 단어로 규정하고 있다. 국어의 문법 모형으로 종합적 견해를 수용하면서 단어 수효의 감소는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다. 예컨대 전치사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는 종합적 문법 모형에 근거했을 때만 성립하는 진술이다. 영어 원문의 전치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어 번역문의 어딘가에 재현되어 있다. 다만 그 ‘어딘가’가 종합적 문법 모형 안에서는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단어 수효의 감소가 번역문 전체 분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쪽으로 오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19) 한자 차자법 시대, 언해의 시대, 한글 번역의 시대 등으로 삼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구분은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를 노정한다. 예컨대 번역 수단에 의한 구분인지, 번역 양식에 의한 구분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20) 특히 양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현대의 번역사를 기술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생각된다.

식량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이해한 데서 온 결과로 보았다. 김정우(2005)는 한국 번역사의 기술에 포함되는 자료로 고유명사 차자표기, 석독구결, 정음번역 문헌 등을 들고 있다.

3.2.3. 과정 중심 연구

마지막으로 눈에 띄이는 것은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번역 과정이란 번역자의 심리 과정을 추적해서 기술하는 작업이므로 '블랙박스'라는 비유가 의미하듯이 원래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기 힘든 분야이다. 정호정(2001, 2004), 강지혜(2002, 2003), 조상은(2004)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호정(2001)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쪽 언어의 어휘(개념) 간극에 주목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일반화(chunking-up)와 구체화(chunking-down) 전략 및 실제 사례를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강지혜(2002)는 문어(번역)에 의한 의사소통도 저자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따라서 번역자는 단순한 '전달자'만이 아니라 '조정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전체 아래, 원문의 독자 참여 유도 표지가 번역문에서 어떤 양상(생략, 전환)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강지혜(2003)에서는 격틀(frame) 이론에 입각해서 번역자의 원문 해석과 번역문 독자를 위한 재텍스트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²¹⁾

조상은(2004)에서는 번역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사고발화법'(TAP)을 활용하여 통번역대학원 재학생 7명을 표본으로 실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²²⁾ 정호정(2004)에서도 번역 과정의 해명을 목표로 전문 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번역사가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여기서 얻어진 문맥 지식을 나머지 번역 과정에 재투여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21) 이상의 논문 세 편은 이론 번역학이나 기술 번역학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번역 과정을 광의로 해석해서 여기에 포함시켰다.

22)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실험자들이 지나치게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지적되어 있는데, 현재의 인터넷 활용 조류를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4. 번역학 연구사(2000-2005) II -응용 번역학

4. 1. 번역 교육

번역학은 실제 번역 현장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번역가를 양성하는 번역 교육에 연구의 비중이 놓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경일(2001, 2002, 2003), Mona Baker(2001), 엄행일(2001, 2002a, 2002b, 2004), 이승재 외(2001), 이상원·이항(2004), 안임수(2002), 김귀순(2003), 정호정(2003a), 손지봉(2003, 2005), 송현선(2004), 김정우(2004a), 이근희(2005), 남원준(2005)이 여기에 속한다.

박경일(2001, 2002, 2003)은 우리의 번역 문화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서로서, 영어 원전의 한국어 번역본(『이성의 기능』 및 『권력에의 의지』)을 분석하면서 영어 바르게 읽기(2001), 이해를 위주로 한 문학 교육(2002), 동양사상의 홀로 그래피적 읽기(2003)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나 베이커(Mona Baker 2001)에서는 번역 연구자와 직업 번역사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면서 특히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번역 연구에 양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엄행일(2001)에서는 국내 한 대학의 학부통번역 전공에서 운영하는 교과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인자로 고려해야 할 사항(언어 차이, 통역과 번역의 차이, 교과 과정의 지향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²³⁾

이승재 외(2001)와 이상원·이항(2004)²⁴⁾에서는 국내 공공 기관의 번역 현

23) 통번역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과 과정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논의는 향후 번역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주의깊게 보아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24) 이 두 연구는 국내의 번역 현황을 다루고 있는 관계로 ‘번역 교육’이라는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번역 현장에 번역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 아래 넣기로 한다.

황과 출판 번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이승재 외(2001)에서는 기관의 번역 업무 담당자와 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번역이 거의 비전문적인 인력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번역과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 장치의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원·이항(2004)에서는 출판 번역 관련자(편집자)와의 면접 조사를 통해 편집자의 비중 및 편집자와 번역자의 상호 관계를 확인하고, 번역의 수준, 시장성 등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정리하고 있다.

안임수(2002)는 학부제 하에서 실시한 번역 연습 수업의 보고서로서,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염행일(2002a)에서는 번역과 통역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제약의 특징을 비교한 결과, 통역은 번역에 비해 어휘 다양성이 낮고 축약형과 단문의 사용이 많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번역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염행일(2002b, 2004)는 학부 학생들의 실기 능력을 대상으로 한영 번역의 성공률을 조사한 연구인데, 비교 실험 집단으로 국내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과 국외에서 3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선정한 점이 특이하다.²⁵⁾

김귀순(2003)에서는 문화 매개자로서의 번역자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이를 번역 수업에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실제 예문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정호정(2003a)에서는 번역 텍스트 확장률을 기준으로 A-B 번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번역 교육 현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손지봉(2003)에서는 국내 중국어 관련 학과의 통번역 교육 현황을 개괄하면서 ‘본위’(本位)와 ‘외위’(外位) 등 중국 특유의 번역관과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송현선(2004)에서는 번역 교육에 한어 병음 방안을 활용하되, 이의 개정과 보완 또는 교육용 한어 병음 방안의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우(2004a)에서는 번역 과목이 갖는 종합적 문식 능력에 주목하여 이를 대학의 교양과정에 개설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교과 과정 설계와 운영 방안을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근희(2005)에서는 초보 번역자에게서 나타나는 언어적 요인에 의한 번역투를 번역 교육 현장에서 교정할

25) 실험 결과는 일반의 예상대로 문장력이나 어휘력, 번역 속도 등에서 모두 해외파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있다는 논의를 펴고 있다. 남원준(2005)에서는 병렬 말뭉치를 대학원 과정의 한-영 번역 교육에 도입할 필요성과 의의를 논의하고 있다. 손지봉(2005)에서는 실제 번역에 앞서 5단계의 텍스트 읽기(서지사항 이해, 개괄적 내용 읽기, 능동적 읽기, 분석적 읽기, 종합적 읽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 번역 비평

번역 교육 못지않게 연구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주제는 번역 비평이다. 이 분야는 이미 적잖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만, 단순한 오역 사례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오역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보다 나은 번역의 생산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보다 한 걸음 진전된 연구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홍섭(2000), 황경자(2000), 성초림 외(2001), 호사카 유우지(2001, 2002, 2003), 박향선(2002), 정일영(2002, 2003), 오영은(2003, 2005), 박진임(2004), 장인식(2004), 사치코(2004), 김정우(2004b), 이상원(2005)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2.1. 번역 평가 방법론

성초림 외(2001)는 국내 통번역대학원에서 번역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와 강사를 대상으로 번역물의 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다. A-B 번역과 B-A 번역으로 나누어서 구성한 설문을 39명의 대상자에게 배부하여 회수한 다음에 이를 분석하여, 제1 외국어 능력의 함양이 중요하고, 객관화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김정우(2004b)에서는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 방법을 혼합한 모형을 설계하여 학부의 교양 과정으로 운영한 번역 강좌의 평가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독해면과 표현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이들 두 부분의 총점과 전체 총점 사이의 상관도를 산출했다.

이상원(2005)는 기본적 태도, ST와의 관련성, TT의 효율성, 배경 지식, 윤리, 정책 등 6개 규범을 준거로 해서 번역서의 독자들이 번역서를 평가하는 잣대를 규명하려는 연구인데, 단어와 표현 구성, 오타자, 문장 구성(TT의 효율성 규범)과 단어와 표현 이해, 문장 이해, 첨삭(ST와의 관련성 규범) 등의 하위 규범이 그러한 잣대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4.2.2. 한-영 번역

조홍섭(2000)에서는 영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주로 문화 차이에 기인하는 오역의 유형을 정리하고 있다. 박향선(2002)도 영역시의 오류를 검토하면서 원작 의도의 왜곡과 가독성의 확보를 위해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력과 시적 안목이 필요하고 원어민과의 공동 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임(2004)에서도 6편의 영역 작품을 대상으로 번역을 평가하면서 특히 원작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의 재현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장인식(2004)에서는 영어권 독자에게 소개된 세 편의 시조(이순신, 이조년, 김종서)를 대상으로 여러 번역가에 의한 영역을 대조하면서, 최소한의 형식미(3장)와 의미 등가성을 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4.2.3. 일-한/ 한-일 번역

황경자(2000)에서는 일본의 현대 작가인 요시모토 바나나의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어의 단어만을 우리말로 바꾼 어법상의 문제와 한문투 및 일본어 직역투 등이 극복의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사카 유우지(2001, 2002, 2003)는 현대 일본 소설의 한국어 번역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오역 사례를 검토한 일련의 연구로서, 오역의 사례를 단순 오역, 어학적 오역, 독해상의 오역, 문화적 오역, 역사 지식에 기인한 오역, 번역 누락 등으로 나누어서 유형화하거나(2001), 번역상의 생략과 누락을 논의하면서 고의적인 생략을 경계하는 한편(2002), 번역 양상을 개괄하면서 대중소설의 경우 직역을 위주로 하되 문화적 차이에 의한 부분만은 의역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2003). 오영은(2003, 2005)에서는 일본 현대 소설의 한국어 번역 검토를 통해 오류의 유형을 정리하고 오역 자료의 번역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는 한편(2003), 일본 한자어의 오역 가운데 일본에서 조어된 ‘화제한어’(和制漢語)가 주된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사치코(2004)에서는 일본 텔레비전 드라마(여름눈)의 한글 자막을 대상으로 오역 여부를 점검한 연구로서 ‘제대로 듣기’의 중요성과 장르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정일영(2002, 2003)은 주로 관광 안내 자료(리플렛, 웹사이트)에 나타난 일

본어역의 오류를 사례 중심으로 검토한 일련의 연구로서, 문화 관련 용어의 오역(2002)이나 자체(字體)와 격식성, 지나친 직역 등의 문제(2003)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어 원안의 손질과 원어민의 감수(2002)를 제안하고 있다.

4. 3. 번역 보조 장치

이동영(2001)은 번역 보조 장치(translation aids)를 다룬 유일한 연구로서, 여기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어 대화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의 존칭 현상이 제반 상황 요인(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위계, 격식성 등)에 의해 결정되고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반 상황 요인을 프로그래밍하여 번역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 CAT(computer aided translation) 등과 관련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흐름과 전망

5. 1. 연구의 경향

먼저 연구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영역의 분포를 조사해 보면, 순수 번역학이 77편이고, 응용 번역학이 36편으로 나타난다. 순수 번역학에서는 이론 번역학이 47편, 기술 번역학이 30편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응용 번역학에서는 번역 교육이 19편, 번역 비평이 16편, 번역 보조 장치가 1편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기초 통계를 고려해 볼 때, 현재 국내의 번역학 연구는 이론과 실무 가운데 이론 편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⁶⁾ 번역학의 성격상 순수 번역학 연구와 응용 번역학 연구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상태가 바람직하다

26) 이는 필자의 분포로 보아도 쉽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중복 필자를 포함하여 113명의 필자 가운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번역가나 번역회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 완전한 학계 중심의 연구 경향을 읽을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광성희(2002: 126)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번역학의 여러 분야는 상호의존적어서 기술 번역학을 통해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면 여기서 일반 이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 일반 이론은 이론 번역학의 기반이 된다. 역으로 이론 번역학은 기술 번역학의 가설이 되고, 기술 번역학의 연구 결과에 따라 확립되거나 수정되고 혹은 폐기된다. 또한 순수 번역학을 구성하는 이론 번역학과 기술 번역학은 응용 번역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제 번역물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기술 번역학의 자료가 되므로 이론 번역학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각 분야의 균형적인 연구가 절실하게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번역 대상 외국어의 분포도 영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번역 대상 외국어의 저변 확대도 요구된다.²⁷⁾ 이는 곧 번역과 번역학의 저변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로, 번역 교육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 외국어역(outbound translation)도 훨씬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²⁸⁾

전반적인 연구의 흐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국내 번역학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번역의 산업화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²⁹⁾ 우리에게 번역은 여전히 혼자 앉아서 사전을 앞에 두고 벌이는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일 뿐이다. 지식 정보 시대에 산업화된 개념으로 무장한 번역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2. 당면 과제

위와 같이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드러난 몇 가지 과제를 지적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은 용어의 통일 문제이다. 연구자들마다 동일한 개념을

27) 바탕이 되는 외국어를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영어가 67편, 일본어가 10편, 중국어가 9편, 독일어가 5편, 러시아어와 아랍어가 각 2편, 기타 1편으로 나타났다.

28) 번역의 방향을 가릴 수 있는 59편의 연구 가운데서 외국어역은 19편에 불과했다.

29) 단적인 증거로 번역 보조 장치 항목에 속하는 연구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세계 학계의 흐름을 생각하면 기계 번역에 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의미하면서도 제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는 후속 연구자들은 적잖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동일한 인명의 표기가 두 가지 이상으로 나오는가 하면(캄포스 ~ 캬포스 등), 학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도 서로 달리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전환 ~ 변환 ~ 전이 등).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형식의 통일이 아니라, 특정 학문 분야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³⁰⁾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학제적 협동 연구이다.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번역은 출발언어/문화와 도착언어/문화 양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외국어문학과 국어국문학 내지 언어학과 문화학 사이의 협동 연구는 그렇게 흔한 주제로 목격되지 않는다.

5. 3. 향후 전망

위에서 개괄한 국내의 번역학 연구(2000-2005)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전개될 연구는 거시적 담론과 소개의 수준을 넘어서 보다 미시적이고 심층적이며 연속적인 성격의 논의가 되어야 질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학 협동의 개념이 번역학 연구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번역학 자체의 실용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번역의 사회적 기능 때문에도 우리 학계에 요구되는 사항이다.³¹⁾ 협동 연구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의 학제적 연구

30)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어 예컨대 『번역학 연감』이 출간될 수 있다면, 그 안에 1년간의 연구 동향을 각 분야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용어의 통일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용어의 통일은 강제적인 통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비 정도의 개념이다. 강제적인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발표장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원천언어가 상이한 경우에는 유사한 개념이라도 달리 번역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발표장에서 남성우 선생님 지적)

31) 번역(학)은 취업 대책 면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는다. 대학에서 예비 번역가를 교육하고 번역 회사가 이를 인턴 사원으로 활용해서 유능한 번역가로 만든다면 번역의 사회봉사 기능을 훌륭하게 완수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다. 곧 외국어학 한국어학의 협동 연구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CAT를 위한 자연언어 처리와 번역학 분야의 학제적 연구도 가능하다. 물론 교육 현장과 번역 현장의 산학 협동도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번역학 연구의 성과를 외부적으로 알려서 세계 학계의 흐름과 병진할 필요가 있다.³²⁾ 이는 앞으로 사회가 지식 정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그 한쪽에서 번역이 산업 활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이 될 때를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자칫 국내 번역계는 외국 문화나 사상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2000-2005) 이루어진 번역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았다. 앞에서 지적된 주된 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한다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공적인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 축적된 성과에 덧붙여 연구의 역사가 깊은 기존의 여타 인문과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³³⁾

- 곽성희. 2000. 「텍스트성과 번역전환 - 영한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권 1호, 93-118. 한국번역학회.
_____. 2002a. 「영한번역에 나타난 결속구조 전환양상」. 『번역학 연구』 3권 1

32) 일례로 모나 베이커가 편집한 『번역학 백과사전』의 제2부는 세계 각국의 번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번역 전통은 비교적 비중있게 다루어진 반면 아쉽게도 한국의 번역 전통은 아예 빠져 있다.
33) 실제로 연구사를 다룬 글이므로 분석 대상이 된 논문을 모두 참고문헌에 언급해야 하지만, 지면 관계상 본문에서 특별히 내용이 분석된 논의만을 여기에 수록하기로 한다.

- 호, 125-144.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2b. 「Intertextual Mediation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번역학 연구』 3권 2호, 165-188. 한국번역학회.
- 김영신. 2003a. “The Translator's Mediation in Ideological Issues—A Critical Approach to 'News Translation'”, 『번역학 연구』 4권 2호, 175-190. 한국번역학회.
- 김정우. 2000. 「언어학 술어 번역의 체계화 문제」. 『번역학 연구』 1권 2호, 5-26.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3a. 「자연 과학 텍스트의 번역 방법론 시론」. 『번역학 연구』 4권 1호, 27-50.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3b. 「영-한 번역과 국어의 몇 과제」. 『통번역교육연구』 1권 1호, 5-24.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_____. 2004a. 「대학 교양 영역으로서의 번역 과목의 의의 -원격교육 방법론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5권 1호, 25-54.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4b. 「번역 평가의 실제」. 『번역학 연구』 5권 2호, 5-30.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5. 「한국 번역사의 기술과 자료」. 『통번역교육연구』 3권 1호, 5-20.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김지원.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 연구』 1권 1호, 9-32.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4.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번역학 연구』 5권 1호, 55-76. 한국번역학회.
- 김효중. 2000a. 「번역등가의 개념과 유형설정」. 『번역학 연구』 1권 2호, 33-58.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5. 「윤태웅의 릴케시 번역 고찰」. 『번역학 연구』 6권 1호, 19-44. 한국번역학회.
- 백수진. 2001. 「중한 조응(中韓 照應) 비교와 번역」. 『번역학 연구』 2권 1호, 29-52.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5. 「동화 문체의 중한 번역」. 『번역학 연구』 6권 1호, 45-64. 한국번역학회.

- 성백환. 2000. 「번역속도 제고의 순차번역」. 『번역학 연구』 1권 1호, 119-144.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3. 「심층적 순차번역의 방법과 의의」. 『번역학 연구』 4권 2호, 117-130. 한국번역학회.
- 신지선. 2005. 「아동 문학 번역에서의 가화성(Speakability)」. 『번역학 연구』 6권 1호, 65-98. 한국번역학회.
- 양병선. 2000. 「국어의 영문표기 및 로마자표기에 관한 제언」. 『번역학 연구』 1권 1호, 145-168. 한국번역학회.
- 염행일. 2001. “Curriculum for Undergraduate Program i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번역학 연구』 2권 2호, 167-186.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2a. 「Temporal Characteristics i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번역학 연구』 3권 1호, 165-184.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2b. “Undergraduate Translation Major's Performance : A Contrastive Study of Translation from Korean into English”, 『번역학 연구』 3권 2호, 189-204. 한국번역학회.
- 원영희. 2000. 「한글성경 번역상의 변화연구 - 등가성의 관점에서」. 『번역학 연구』 1권 2호, 89-110. 한국번역학회.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 연구』 1권 1호, 229-248.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試論)」. 『번역학 연구』 3권 1호, 9-38. 한국번역학회.
- 윤희주. 2004. 「번역의 검증기제로서의 성분분석 연구」. 『번역학 연구』 5권 2호, 93-112. 한국번역학회.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권 2호, 47-76.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1.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 연구』 2권 1호, 53-76.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2. 「한국어와 영어간 언어구조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 인용문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3권 1호, 59-82.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4. 「영어 관계절 구문 번역의 문제」. 『번역학 연구』 5권 1호,

- 145-166. 한국번역학회.
- 이유식. 2000. 「한국문학 영어권 번역 소개 연구 -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권 1호, 169-202. 한국번역학회.
- 장민호. 2004. 「영화 번역 전략과 언어의 경제」. 『통번역교육연구』 2권 2호, 21-48.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_____. 2005. 「영화 번역에서의 유머효과의 감소」. 『통번역교육연구』 3권 1호, 45-56.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전현주. 2004. 「다중 체계 이론과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 『번역학 연구』 5권 1호, 167-182. 한국번역학회.
- 정일영. 2002. 「일본어역 관광자원해설 리플릿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연구」. 『번역학 연구』 3권 2호, 113-132. 한국번역학회.
- 정호정. 2001. “How to Bridge Lexical Gaps As Reflective of Different Categorization Systems—Assessing *Chunking-up and Chunking-down* Tactics”, 『번역학 연구』 2권 2호, 187-222.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3a. 「코퍼스 중심의 번역학 연구」. 『번역학 연구』 4권 2호, 71-88.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4. 「번역사의 텍스트 읽기」. 『통번역교육연구』 2권 1호, 121-136.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조상은. 2004. 「TAP(Think-Aloud Protocol)에 나타난 일한번역학습자의 번역 성향」. 『통번역교육연구』 2권 1호, 55-78.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조인정. 2005. 「영한 번역의 문제점: 수동태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6권 1호, 121-142. 한국번역학회.
- 최정아. 2003. 「병렬 말뭉치를 통한 한국어-영어의 번역 단어수 연구」. 89-116. 『번역학 연구』 4권 2호, 한국번역학회.
- 호사카 유유지. 2003. 「일본 대중소설에 대한 직역과 의역 및 개작에 관한 소고」. 『번역학 연구』 4권 1호, 97-116. 한국번역학회.
- Lee Dong-young. 2001. “A Method of Computationally Translating Dialogue Using Its Situation: The Case of English-into-Korean”, 『번역학 연구』 2권 1호, 107-122. 한국번역학회.

к с і

[Abstract]

The Trends and Perspective of Translation Studies in Korea(2000-2005)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has two main purposes: first, to review papers related to translation studies produc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in 1999; second, to catch their trends and perspective afterwards.

As a frame of division and analysis I use the scheme of translation studies suggested by Holmes. Having reviewed 113 papers in total, I found that the current research of translation studies is heavily theory-oriented(76 vs. 37). It is desirable for translation studies to overcome such a bias and keep the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t is required to unify technical terms in a natural way, not artificially. Furthermore, a kind of industry-university concept is urgently needed also in translation educ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translated production of beginners.

▶Key Words: pure translation studies, applied translation studies, theoretical translation studies,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translation education, translation criticism, translation aids.

김정우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부교수

kjwn@kyungnam.ac.kr

관심 분야: 번역이론, 번역사

논문투고일: 2005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05년 12월 10일

KCS I

KCS I